5천 대중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다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㊸ 법화경 2

〈법화경〉이 설해진 장소는 누구나 영축산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법화경〉은 2곳에서 3회의 설법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서품부터 제10품까지 영축산의 영산회상에서, 두 번째는 11품부터 22품까지 영축산 하늘로 자리를 옮긴 허공회상에서, 세 번째는 23품부터 28품까지 다시 영산회상에서 이루어졌다. 천태지의(538~597)는 〈법화경〉 7권 28품을 1부터 14품을 석가모니불의 자취인 적문(迹門)과 15부터 28품까지를 본래불의 모습인 본문(本門)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 경은 인간에게 가정 다정하게 설법하신 경이라 처음엔 강렬한 포스를 드러내시어 날카롭고 엄하게 시작되어 너무도 섬세하고 부드럽게 "모든 중생은 나와 다름없이 평등하다", "삼계중생이 모두 나의 자식이다" 하시며 온갖 방법으로 제도하셨다.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법화칠유(法華七喩)'이다. 중생을 깨닫게 하려는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화택, 궁자, 약초, 화성, 의주, 계주, 의사의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든 것이다.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와 안목을 갖추도록 깨달음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펼쳐 보이는 것은 그들도 똑같이 얻게 하고자 함이며(開), 보여주기 위함이고(示), 깨달음을 성취토록 함이며(悟), 깨달음의 길로 들어오게 인도하기 위한 것(入)이다.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의미다. 우리를 위하여 부처님이 오신 것을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이라 했으며, 〈법화경〉 속에서 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무량의경(無量義經)을 마치고 마음을 하나로 정하여 움직이지 않는 깊은 삼매, 무량의처삼매에 드셨던 세존이 삼매에서 깨어나 사리불을 향해 설법을 한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한량이 없어서 그 지혜의 문에 성문, 연각을 비롯해 그 누구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동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아무나 부처님이 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사리불은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을 보고 알았다. 성문, 연각의 지혜로부터 대승의 지혜로 업그레이드시키시려함을 알아차렸다.

여래의 지혜는 광대하고 깊어서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 그런 부처님의 마음을 어떻게 중생이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 무수방편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해야겠구나 싶어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니 부처님이 손을 저으시며 "사리불아, 그만하라"고 한다. 청천벽력같은 첫 번째 거절이다. 충격이다. 왜 설법을 거절하신걸까. 지금까지 닦아온 삼승의 길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의 종착점이 아니라 경유지이니 좀 더 가야 한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제자들을 위하여 가르침을 주셔야 하는데 거절하셨다. 아직 온전한 청법의 말씀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만두라고 하신 것이다. 부처님은 오직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인 여래만이 여래에게 설법할 수 있다며 너희 성문과 연각은 들어도 이해 못 한다고 하니 사리불과 제자들은 청천벽력같은 절망을 느꼈다. 사물의 10가지 실상에 관한 것을 다 아는 십여시(十如是)를 통달하여 절대평등을 이해하고 차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너희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 법을 들어서 알 수 있는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이미 해탈의 길에 들어섰고, 이제 열반을 성취했다고 여겨 제자를 거느리며 교만하게 차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부처님은 중생교화를 하지 않고 도태일로에 서 있는 제자들을 위해 뼈아픈 말을 하고 계신 것이다.

사리불이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해야 수행을 완성하는지에 대해 두 번째로 법을 청한다. 부처님은 "그 의미를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지금 설한다고 해도 그대들은 모두 두려움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씀하신다. 사리불은 이 말을 듣고, "저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간곡히 세 번째 청을 하게 된다. 부처님이 세 번째 청도 거절하자 사리불과 부처님만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법을 받아 반드시 실행하겠노라 맹세한다. 부처님과 사리불이 이렇게 삼지삼청(三止三請)하는 것을 보고 있던 대중들 가운데, 평소에 우쭐거리길 좋아하던 사부대중 5천 명은 자존심이 상하여 설법을 듣지 않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교육의 방법론으로 〈금강경〉을…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㊷ 금강경 공부로 인재를 만들다

조선시대 교육의 교과서는 성인군자의 말씀인 '사서삼경'이었다. 군자의 법식을 이해하고 마음을 닮게 하여 보통 사람을 군자처럼 지혜롭게 만드는 교육방식, 말하자면 인성교육과 지혜교육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으로 배출한 조선의 인재들은 아상을 닦아 밝아지는 수행을 병행하지 않았기에 정치에서 사색당쟁이 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상공업을 천시하는 사농공상의 풍토로 인해 국력이 쇠퇴하고 결국 침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은 되었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오백 년간의 지혜교육과 인성교육이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예리하게 통찰한 어느 서양 사회과학자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조선의 교육정신이 경제를 바닥 상태에서 현재의 풍요로운 상태로 만드는 데 잠재적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10대 경제대국이 된 결정적 힘은 조선시대의 교육이 아니라, 선진국을 따라잡는 교육 즉 지식교육과 모방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경제 성장에 상당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선진국을 모방하는 지식교육 형태로는 창조적 두뇌개발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벽을 넘어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재들은 해외유학 시 번번이 미국 등 선진국 학생들에 대해 많은 열등감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질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운 정답만 찾는 교육, 지식만 배우는 교육으로는 창의성 교육을 받은 선진국의 학생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에는 귀납법과 연역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납법은 경험이나 정보를 토대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납법으로 얻은 진리는 완벽하지 않은 경험이나 정보를 토대로 하였기에 이로부터 얻어진 진리 역시 불완전한 진리라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연역법은 올바른 전제를 토대로 하는 방법으로, 이때 얻어진 진리는 100% 옳은 진리, 완전한 진리가 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연역법은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기본 가정을 토대로 한 진리 탐구 방법이기에, 비록 그 방법이 서양에서 시작되었지만, 동양에서 더 활용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제거하지 않고 단순 지식이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얻은 지혜는 불완전한 지혜라 하였는데, 이는 귀납법적으로 얻은 지혜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천재가 사라지고 도인이 부재한 21세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로지 귀납법에 의존하여 진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발견된 진리를 현장에 적용하여 얻은 교육이나 경영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강경〉과 같은 고전의 가르침을 기본 전제로 시작하는 연역법에 의한 경영 또는 교육이 존재한다면, 이 방법은 당연히 귀납법으로 제시된 것보다 더 완전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색즉시공(色卽是空) '이 뭣고'

색(色)이란 유형(有形)을 말하고, 공(空)이란 무형(無形)을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서로 통하고 있는가? 그러나 알고 보면 바위가 허공(虛空)이고 허공이 바위이다.

예를 들어 바위를 자꾸 나누어 가다보면 분자(分子)들이 모여서 생긴 것이고, 분자는 또 원자(原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원자도 소립자(素粒子)들이 모여서 생긴 것으로 결국 소립자 뭉치인 것이다. 그러면 소립자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것은 원자핵 속에 앉아서 시시각각(時時刻刻)으로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을 말하고 있다. 스스로 충돌해서 입자(粒子)가 문득 나타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있고, 바위도 무정물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인 소립자(素粒子)를 세분화하면 머리카락 굵기의 1조분의 1인 쿼크(Quark)인데 원자보다 십만배 이상 작은 원자핵 안에서 자동으로 스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宇宙)를 형성(形性)하는 근본(根本)은 에너지, 질량(質量), 그리고 광자(光子)이다. 상대성원리인 E=mc2의 공식은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뿐 아니라,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하나이며 부증불감(不增不減)이다.

질량이란 유형의 물질로서 깊이 들어가면 물질인 소립자이고, 에너지는 무형인 운동하는 힘이다. 연기법(緣起法)과 공성(空性)의 세계서 본다면 모든 존재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이며 부증불감(不增不減)이다.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상주법계(常住法界)는 무진연기(無盡緣起)가 있을 뿐이니 이것이 제법(諸法)의 실상(實相)이다.

무진연기상의 일체 생명은 성상일여(性相一如)이며 물심불이(物心不二)여서 유정무정의 구별이 없고 생명은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의 총칭(總稱)이다.

그러므로 무정설법을 들을 수 있어야만 생명의 참소식을 알게 되는 것이니, 개개생명 전체가 절대여서 생명거래가 없는 것이다.

계성변시장광설(溪聲便是長廣說) 산색개비청정신(山色豈非淸淨身)
야래팔만사천게(夜來八萬四千偈) 타일여하거사인(他日如何擧似人)

"계곡서 흘러가는 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산색 그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로구나. 밤새 쏟아내는 팔만사천 부처님의 감로 법문을, 뒷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을까?" 이 시(詩)는 산하대지 두두물물이 진리와 선의 세계가 아님이 없는 무처불시선(無處佛是禪)의 경계를 읊은 소동파의 오도시(悟道詩)이다.

소동파가 옥천사라는 절에 승호 큰스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니, "대인(大人)은 누구십니까?"라고 묻자, "나의 성씨는 칭(秤)가요" 천하 스님들 무게를 달아보는 저울이라고 하였다. 이에 스님이 '악' 하고 할을 하시며 "이 것이 몇근이나 됩니까?" 하고 반문하니 그 한마디에 소동파는 앞뒤가 꽉 막혀버렸다. 그래서 그 길로 상총 스님을 찾아가 '할' 하는 도리를 묻자,

"어찌 무정설법은 듣지 못하고 유정설법만 들으려 하는고"하며 꾸짖으니, 말을 타고 계곡을 내려오다가 오로지 무정설법이라는 의정에 모든 생각, 분별이 사라지며 폭포수 소리에 개오한 것이다. 우주(宇宙)에 가득찬 그대로가 반야(般若)이고, 시제법공상(是諸法空相)이며, '이 뭣고' 이며 증감(增感)이 없는 전 우주인(宇宙人)이고, 본래완성이며 본래구족(本自具足)이다.

또한 '이 뭣고'는 한없이 온갖 법을 창출하고 섭수(攝受)하되, 일찍이 일체법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정화되어 있지 않은 빛이 4차원을 넘어선 공간에서는 영(靈) 혹은 영적(靈的) 에너지로 존재한다. 이 영적 에너지는 무형으로서 생명의 근본이며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불성이고 진여본심이며 '이뭣고' 인 것이다.

〈낭양주 선재사 주지〉

기봉 전통 범패 의식 강원

전통 불교의식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식 전문 학인을 모집합니다.

◆ 응 시 자 격 ◆

① 입 학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생(음악,국악과) 등 일반
② 제 출 서 류 : 본 강원 소정양식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사본, 해당자)
③ 전 형 일 정 : 2019년 1월 8일까지
④ 개강 기초반 : 2019년 1월 8일 (매주 화요일)
⑤ 상주 권공 : 2019년 1월 11일 (매주 금요일)
⑥ 시 간 : 오후 1 시 ~ 4 시
⑦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대흥로 26번지 대은사

※상 담 문 의 : 010-9170-3631

법고무 특강

개 강 | 2018년 11월 19일 (매주 월요일) ~ 2019년 1월 28일 까지
시 간 | 오후 1 시 ~ 4 시 까지
지도 강사 | 기봉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 조교)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